

## 형사소송법

###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2017. 7. 30. 15:00경 시청공무원인 乙을 폭행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乙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로 진술하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甲은 자신이 2017. 5. 30. 乙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면서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결국 공사수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P에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교부장면을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P는 甲을 뇌물공여죄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자진출석하여 폭행죄의 피해자 조사를 마친 乙은 P가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甲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였다. 이에 P는 乙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2017. 7. 30. 17:00경 그 자리에서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그 후 P는 2017. 8. 1. 09:00경 乙의 집에서 乙의 참여 하에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 9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면서 乙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후에 별도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경찰관 P의 乙에 대한 긴급체포와 골프채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 2) 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S는 검찰수사관 X의 참여 하에 甲과 乙을 각각 신문하였다. 신문과정에서 乙은 처음에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甲에게 관급공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甲도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여 S는 甲과 乙에 대하여 각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영상녹화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 甲과 乙은 함께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S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도 인정하였다. 반면 乙은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뇌물수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S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부동의하고,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이때 甲과 乙에 대한 S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수사관 X의 증언을 乙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단, 기타 적법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전제함) (15점)
- 3) 만일 2)와 달리, 검사 S는 甲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乙만 기소하였다. 乙이 공판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S는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甲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다. 乙의 뇌물수수에 대한 자백진술이 기재된 S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증언과 乙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단, 乙은 乙에 대한 S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문과정도 영상녹화 되지 않았음) (15점)

제 2 문. 유명가수 A는 Z스포츠신문에 “A가 여배우 B와 동거하고 있으며, 아이까지 있다”라고 게재된 기사를 보고 취재기자 甲과 편집장 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가 수사기관에 甲과 乙 모두를 고소하여 甲과 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제1심 재판 중에 甲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A는 법원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5점)
- 2) 만일 제1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乙이 甲과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甲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乙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한 것은 적법한가? (15점)

제 3 문.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甲의 변호인 乙은 甲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소제기 된 다음날 검사 S에게 甲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하였다. 乙이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리고 열람·등사할 대상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음에도, S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乙의 증거개시신청을 거부한 S의 처분은 적법한가? (10점)
- 2) 증거개시를 거부한 S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점)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